



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0. 3. 18.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
과 장 : 서 재 연
서기관 : 이 은 정
전 화 : 02-500-1812
쪽 수 : 3P
별첨자료 : 없음

이 자료는 2010년 3월 19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이들의 행복한 시골살이, 농어촌 유학

- 농식품부, 농어촌 유학 성공모델로 창출하기 위한 시범사업 지역 선정 -

- 농식품부는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충북 단양군 한드미마을, 경북 경주시 서면 도리마을 유학센터, 강원도 양양군 철딱서니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.
-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전국의 농어촌 유학 사례를 발굴하고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.
 - 농어촌 유학의 준비 단계부터 실행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·배포하고, 12월에는 농어촌 유학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였다.
- 농식품부는 2010년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거쳐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한 결과, 당초 계획(2개)보다 많은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.
 - 선정 지역에는 총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역별로 3천~5천만 원까지 각각의 특색에 맞는 유학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.
 - * 영어 원어민 교사 채용 지원, 꼬마농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농지임대 및 농자재 구입 지원, 중고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

- 벌써 4년째에 접어드는 한드미마을은 다양한 체험과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으로 20명 모집에 50여명의 신청자가 몰렸다.
 - 소백산 패러글라이딩, 계곡 레프팅, 동굴체험, 천문관측 등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고급 체험활동과,
 - 원어민 영어 교육, 컴퓨터 실습, 기초 학습지도 등 도시수준의 학습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있다.
 - 또한,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동물농장과 공구 조작용 가능한 공작소, 한드미 밴드 등을 조직할 계획이다.
- 도리마을 산촌유학은 학부모들 간에 입소문을 통해 알려진 곳으로 주로 사회 부적응 청소년들이 생활하며 학교와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체력을 습득하고 있다.
 - 농어촌 유학의 주 대상이 초등학생들인데 비해 도리마을은 중고생이 8명, 초등학생이 7명으로 총 15명의 학생이 유학 중이며,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유학 참가비를 받고 있다.
 - 명상 등 인문교육을 중시하고, 인도 오르빌 공동체에서의 30일간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.
 - 중학교 꼴찌가 고교에서 전교 3등을 하자 장수마사고 교장이 유학센터 방문, 도리 학생들은 성적과 상관없이 입학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.
- 철딱서니 학교는 전교생이 20명인 지역 초등학교에 19명을 유학생으로 채우는 등 상한가 행진 중이다.
 - 덕분에 학교는 폐교위기에서 탈출하고, 마을주민들도 유학센터 아이들을 위해 유기농법으로 전환하고, 도시부모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적극 구입하는 등 도농 상생의 협력모델을 구현하고 있다.

- 농어촌 유학은 현재 전국적으로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고, 5개 지역에서 준비 중이다.
 - 농어촌 유학은 도시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 시골학교를 다니며,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으로
 - 폐교 위기에 놓인 지역학교를 유지시키고 농촌 아이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도시문화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.
 - 도시아이들도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농촌의 가치와 자연, 역사,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인성이 함양되며 아토피 치유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도 해결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.
- 농식품부 농촌사회과 서재연 과장은 “농어촌 유학생들이 도시 학생들과 동등한 학습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어촌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,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공인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”이라며
 - “농어촌 유학은 아이들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주고, 도시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